‘관객들이 뽑은 독립영화’

광주독립영화관 5주년 기획전

14~16일 ‘소공녀’ 등 9편 상영

김초희 감독 등 관객과 대화도

한국 독립영화 대표작 만나요

드라마 ‘모범택시 1·2’와 영화 ‘건축학 개론’, ‘아이 캔 스피크’의 이제훈은 윤성현 감독의 독립영화 ‘파수꾼’(2011)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배우 박정민 역시 ‘파수꾼’에 출연했었다. 또 감독과 배우로 활동하는 양익준 역시 직접 연출한 영화 ‘똥파리’(2009)로 이름을 알렸다.

한국 독립영화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관객들이 2000년대 한국독립영화들을 대상으로 직접 뽑은 영화들이다. 작품들은 국내외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대중과 평단의 호응을 받았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가 운영하는 광주독립영화관GIFT는 개관 5주년 기획전 ‘다시 보고싶은 독립영화’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극장을 찾은 관객, 영화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관객이 추천한 50편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9편을 상영한다.

최다 득표는 드라마 ‘모범택시’ 등에 출연한 이솜과 안재홍이 주연을 맡은 전고운 감독의 ‘소공녀’(2018)다. 이어 믿음에 관한 엉뚱하고 발칙한 상상을 만나는 문소리·이주영 주연의 유쾌한 미스터리 코미디 ‘메기’(2019), 15세 소녀의 일상을 따라가는 성장영화 ‘벌새’(2019)가 뒤를 이었다.

또 영화일이 끊겨버린 프로듀서 찬실이 친한 배우 소피네 가사도우미로 취직해 살길을 도모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일상을 담은 ‘찬실이는 복도 많지’도 눈길을 끈다.

김희애 주연의 ‘윤희에게’는 비밀스러운 첫사랑의 기억을 가진 윤희가 딸과 함께 첫사랑의 장소였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또 ‘똥파리’와 ‘파수꾼’도 상영된다.

전문가들의 추천작도 만난다. 광주독립영화협회 회원들의 추천작으로는 박석영 감독의 영화 ‘스틸 플라워’가 상영되며 광주영화영상인연대회원들은 현대사를 겪어낸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앵글에 담은 문성현 감독의 다큐멘터리 ‘할매꽃’을 소개했다.

기획전 중인 16일에는 4월호 9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자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담은 김동빈 감독의 ‘업사이드 다운’(2016)와 세월호로 인해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착한 ‘장기자랑’을 상영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다양한 관객과의 대화(GV)도 마련된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의 김초희 감독, ‘스틸 플라워’ 박석영 감독, ‘할매꽃’의 문정현 감독이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 관객들을 만난다.

티켓 가격 6000원. 디트릭스, 광주독립여화관 홈페이지 예매. 문의 062-222-189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정신 모독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위한 예술인과 시민 모임’은 11일 광주비엔날레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서보 예술상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정신 모독…박서보 예술상 폐지하라”

지역미술인·시민 기자회견…비엔날레재단 “예술가 응원 위한 상”

올해 첫 수상자를 낸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이하 박서보 예술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상식이 열렸던 지난 6일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현장에서 타 지역 작가들이 ‘폐지’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11일에는 광주 지역 일부 미술인들과 시민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서보 예술상은 박서보 작가가 기부한 100만달러(약 13억원)를 재원으로 운영되며 매회 행사때마다 참여작가 중 수상자를 선정, 상금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수여한다.

‘광주정신 모독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위한 예술인과 시민 모임’은 이날 광주비엔날레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서보 예술상은 광주정신에서 출발한 광주비엔날레의 창립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에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서보는 한국 모더니즘 미술의 상징적 대표로 5·16 쿠데타 세력에 순응했으며 광주민주화운동을 외면하는 등 개인의 출세와 권력 지향과 영달을 위해 살아온 인물일 뿐”이라며 “오직 사적 명예욕을 위해 기부한 돈을 받아 20년 동안 생존작가 개인의 이름을 붙여 상을 시상하는 행위는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과 오월정신을 매판하는 행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입장문을 내고 “박서보 예술상은 순수하게 후배 예술가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박 화백의 기부가 한국미술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대한 이바지 목적이라는 데 공감해 상을 제정했다”며 “향후에도 다른 기관 등에서 미술계 발전을 위한 후원 의사를 밝힌다면 그에 걸맞는 다양한 시상이나 작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서보 화백은 지난 7일 시상식 당시 1인 시위와 관련, 자신의 SNS에 “더 많은 작가가 나서서 후원하고 상을 만드는 것이 비엔날레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며 제2, 제3의 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발전적이다”고 밝혔었다.

예술상 폐지와 함께 박양우 재단 대표의 책임있는 조치와 즉각적인 면담을 요청한 이들은 앞으로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1인 시위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2인의 성난 사람들’ 인간 본성에 질문 던지다

극단 산수유 공연

14~15일 공연일번지 소극장

극단 산수유의 ‘12인의 성난 사람들’

16살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죄로 법정에 서게 되고, 모든 정황과 증거가 그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사형 판결까지 남은 것은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 결정. 모든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주장하며 토론을 끝내려는 상황에서 배심원 중 한 명이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사람들은 그의 논리에 흔들리기 시작한다.

배심원 토론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극단 산수유의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이 오는 14일 오후 7시, 15일 오후 3시·6시 세 차례 광주 공연일번지 소극장(동구 금남로 218-9)에서 열린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유통협력사업 선정공연이다.

영국 작가 레지날드 로즈의 작품인 이 연극은 1957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한 동명의 영화가 원작으로 1964년 런던 초연 후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재공연되고 있다.

극단 산수유는 이 작품을 2016년 초연했으며 2017년, 2019년 서울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또 ‘월간 한국연극 선정 2016 공연베스트 7’, ‘공연과 이론 작품상’ 등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 모두를 인정받았다.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같은 연극은 프롤로그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배심원실 안에서 일어난 일만을 다루고 있음에도 치밀한 극적 구조와 긴장감 넘는 언쟁 장면을 통해 관객들의 몰입감을 높인다.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12명의 배심원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 군상을 보여주며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 편견과 왜곡의 잔인성 등에 대한 질문은 반 세기가 넘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제 24회 김상열연극상, 제 37회 영희연극상을 수상한 유주현 극단 산수유 대표가 연출을 맡았으며 홍성춘, 강진휘, 남동진, 오일영, 신용진, 한상훈, 홍성호, 현은영, 김애진, 박시유, 반인환, 홍현택, 황비홍 등이 출연한다.

유주현 연출은 “소년의 유·무죄를 놓고 펼쳐지는 진실공방과 열 두 명의 인물들을 통해 보여지는 다양한 인간군상이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내가 가진 편견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등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티켓 가격 2만원.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매 시 할인 혜택.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관장, 개방형 직위로 전환

공무원 파견서 민간 전문가 임용…6월 재개관 전 마무리

현직 공무원이 맡고 있던 광주문화예술회관〈사진〉 관장이 다시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개관 28년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관장을 임명했었지만 2년 6개월만인 지난 2021년 개방형 직위를 해지, 지금까지 공무원을 관장으로 임명해왔다.

시는 오는 6월 문예회관 재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진행, 개관 전까지 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부임한 신민석 현 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3일부터 휴직에 들어가면서 개방형 직위 전환을 추진해왔다.

시는 개방형 직위 해지 당시 반발하는 지역 예술계에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와 내부 현안문제 해결 등이 마무리되면 조직을 정비 후 개방형 직위 관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지만 다시 공무원이 파견됐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문예관장을 지역 문화계가 요구해왔던 만큼 민간인 관장 시대가 다시 열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앞둔 광주문화예술회관을 이끌 수장에 대해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문예회관 관계자는 “현재 문예회관장 개방형 지위와 관련한 내부 문서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임용 절차를 빨리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인파견지원사업_광주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모집

예술을 통해 함께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의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_광주예술로(路)’가 그것. 이번 사업은 예술인과 사회(기업, 기관, 마을)와의 협업을 토대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예술인은 기업, 기관(마을)의 이슈를 리더 예술인과 기획 및 실행하는 예술인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광주시 거주 예술인이어야 한다. 단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이메일(artbodum@naver.com) 접수만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오는 17일 오후 5시.

문화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위해 기업·기관(마을) 2개소와 예술인 10명을 추가했다. 이를 토대로 기업·기관(마을) 14개소, 예술인 70명(리더 예술인 14명, 참여예술인 56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예술인에게는 월12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 5월12일까지 접수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의 ‘호남학산책’은 풍경, 명시, 고문서, 맛기행 등을 모티브로 유려한 문체와 감성을 선사하는 코너다. 많은 독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호남학의 의미와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3회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의 역사문화자원을 경험한 일반인의 사례를 발굴하고 대중적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분량은 200자 원고 30매 내외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모는 오는 5월 12일까지 이메일(kamjabong@hiks.or.kr) 및 방문 접수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가할 수 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에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100만원, 장려상에는 50만원이 수여된다.

선정 결과는 6월 중 누리집 통해 공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호남학산책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호남의 다양한 이야기를 구독하고 싶은 독자는 메일링서비스 신청 주소(https://www.hiks.or.kr/MailingService)로 신청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